눈부신 5월의 신록 아래서 "실력 발휘 제대로 하려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야죠." 현악 부문에 참가한 학생들이 자신들의 무대를 앞두고 경연 장소인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나무 그늘 아래서 연습에 열중하고 있다.

자세 좋고 웅장한 트럼펫 연주를 선보이고 있는 진윤기(금당중 1년)군.

아름다워라, 예술 꿈나무들의 저 몸짓

'예술 꿈나무들의 등용문' 제 55회 호남예술제가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무용·관악 등 각 부문 참가자들의 열띤 경연 모습을 화보로 싣는다.

사진=최현배·김진수기자 choi@kwangju.co.kr

사뿐이 나빌레라 발레 부문 최고상을 수상한 강은혜(동아여고 3년)양이 고전 발레 '돈키호테' 중 '꿈'을 선보이고 있다.

손잡고 들로 산으로 친구들과 손잡고 들로 산으로 소풍 가자. 발레 창작 군무에서 금상을 수상한 화순초등학교 무용부의 '피크닉'.

우아한 춤사위 임예희(상일중 3년)양의 '승무'는 정중동의 미학을 고스란히 나타내는 작품이다.

한마리 새처럼 은상을 수상한 정다연(대성여중 1년)양의 '그림자 조각'.